

# 중년기 기혼남녀의 100세 사회 가족생활 전망과 가족정책에의 함의점

## Family Life Prospect of the Middle-Aged and Its Implications for Family Policy toward Centenarian Society

조희급(Hee-Keum Cho)<sup>1</sup>, 김선미(Seon-Mi Kim)<sup>2</sup>, 이승미(Seung Mee Lee)<sup>3</sup>,  
성미애(Miai Sung)<sup>4</sup>, 진미정(Meejung Chin)<sup>5</sup>, 이현아(Hyunah Lee)<sup>6\*</sup>

<sup>1</sup>Department of Family Welfare, Daegu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Family Welfare, Gwangju University, <sup>3</sup>Department of Senior Welfare, Woosuk University, <sup>4</sup>Departmen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sup>5</sup>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up>6</sup>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

###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explore how middle aged married men and women prospected a Centenarian society and what implications their prospect cast for family policy. We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s with five groups in order to identify their subjective prospects on marital relations, parent-child relations, caregiving from family or institutions, and alternative living arrangement. From those interviews, we found that married men and women in their 40s, 50s, and 60s possessed ambivalent attitudes toward their marital relationship, either acknowledging an importance of marital relationship or accepting long-standing disrespectful marital relationship. They also had a dualistic perspective on parent-child relationship, accepting parental responsibility for children and even grand-children but maintaining low expectations for children. What they needed was age appropriate opportunities for work or leisure and better community services and facilities. These results showed that the middle-aged was concerned experiencing unprecedented family situations. They needed family life education and services in order to adapt to the Centenarian society. Since family policy has viewed this age group out of service target, programs and services have been underdeveloped for this group. Expecting a Centenarian society however, we need to expand the boundary of family policy and take a new perspective. We need to develop and implement marital education programs, community-based self-care services, and age-appropriated opportunities for work, leisure, and social relations.

---

▲주제어(Key Words) : 백세사회(centenarian society), 가족정책(family policy), 가족생활전망(family life prospect), 중년기(the middle-aged)

---

• 본 논문은 2012년 여성가족부 용역보고서 “100세 사회 가족생활 재설계 및 가족돌봄 지원방안 연구”의 일부 내용으로, 2013년 한국가정관리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한국가족복지학회, 한국부모교육학회 공동 학술대회에서 구두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 Hyunah Lee,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Colleg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151-742, Korea, Tel: +82-10-7107-9968, E-mail: leehyun@snu.ac.kr

## I. 서론

평균수명의 증가는 개인적으로는 장수를 의미하고, 사회적으로는 고령화를 의미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2020년 82.6(중위<sup>1)</sup>)세이며 2030년에는 84.3(중위)세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Statistics Korea, 2011). 통계청이 발표한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집계 결과에 따르면 2010년 11월 현재 우리나라 100세 이상 고령자는 1,836명으로 2005년의 961명보다 91% 증가하였다(Statistics Korea, 2010). 현재 우리나라의 최빈 사망 연령대는 80대 중후반인데, 이러한 장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최빈 사망연령이 90대로 높아져 점차 100세까지의 초장수를 누리는 사람의 수와 비중이 높아지는 100세 사회가 되는 것도 멀지 않았다(Y. Kim, 2011).

이러한 100세 사회는 단순히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수준의 대응이 아니라, 전반적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사회제도, 규범, 통합을 새롭게 마련해야 하는 큰 도전을 불러일으킨다. 학자들은 이를 뉴 노멀(New Normal) 관점에서의 재해석이라고 한다(S. Lee, 2011). 뉴 노멀이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새로 떠오르는 기준이나 표준을 의미하며, 비정상성이 정상화되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ChosunBiz, 2010). 원래 뉴 노멀은 저성장과 저소비 등의 경제위기를 설명하는 용어이지만, 이제는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신 사회위험을 설명하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용어이다. 출산율의 하락을 비정상적으로 보고 이를 정상화시키는 노력은 '뉴 노멀'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회귀적인 접근이다. 오히려 낮은 출산율을 새로운 표준으로 보고 이에 맞춰 사회구조와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뉴 노멀'의 접근이다.

또한 가족의 관점에서 보면, 100세 사회는 가족의 구조와 기능 등 가족체계의 총체적인 변화를 야기한다. 세대관계가 길어지면서 세대 수 자체는 증가하지만 동 세대에 포함되는 가족원의 수는 감소하여 콩깍지같이 긴 가족관계가 형성된다(Bengtson, Rosenthal, & Burton, 1990). 세대관계가 장기화되면 세대 간 교환의 형태나 빈도도 영향을 받아 달라질 수 있다. 100세 사회는 세대관계 뿐 아니라 부부관계를 장기화시킨다. 동시에 이혼의 장벽이 되는 자녀수가 감소하므로 부부관계의 해체 가능성도 증가한다. 이러한 가족 변화를 어

떻게 해석하고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개인적 성찰과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특히 가족주의 전통이 강하고 부모-자녀 관계가 강조되는 한국 사회가 유럽 국가들과 유사한 형태의 가족 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는지 아닌지 또 이러한 가족 변화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한 연구와 이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100세 사회를 전망하는 연구들은 주로 전문가들의 통찰에 근거하여 고령화라는 메가트렌드가 사회 전반, 즉 산업, 고용구조, 자산시장, 의료서비스, 사회통합, 복지정책 등에 미칠 거시적 영향들에 주목해왔다(S. Lee, 2011).

이렇게 가족변화를 통해 사회변화를 전망하는 연구들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100세 사회의 가족생활 변화가 가족구성원들과 우리의 일상적 상호작용에 미칠 미시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거시적 전망이 제시하는 큰 그림에서는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현상들이 생략되거나 간과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100세 사회에 대한 전망을 하되, 현재 중년기인 40대, 50대, 60대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이들의 주관적 인식을 알아보는 방식을 취하였다. 현재 중년기 세대는 100세 사회에 대한 예비사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00세 사회를 맞이할 세대이다. 베이비붐세대(1955년~1963년생)를 포함한 현재 중년기 세대는 수적인 비중 외에도 사회경제적 특성이 과거 노인세대와 다르다는 점에서 100세 사회를 전망할 때 주요한 연구 대상이 된다(S. Lee, 2012). 특히 2010년부터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시작되고 2020년부터는 노인세대로 진입함으로써 향후 10-20년 사이에 우리 사회의 인구학적 변화가 예상되며,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가족생활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필요성과 더불어 사회적으로는 가족정책의 외연을 넓혀야 할 필요성을 야기한다. 이에 본 연구는 100세 사회 가족생활의 변화에 대해 전망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족정책에의 함의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100세 사회 정의와 관점

최근 우리사회는 고령화문제를 노인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의 변화와 다양한 사회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다 거시적이고 광범위한 관점에서 조망하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의하면 최빈사망연령이 90대가 되는 시점을 '100세 시대'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대수명이 아닌 최빈사망연령을 100세 시대의 기준지표로 선정한 것은

1) 인구변동요인(출산, 사망, 국제이동)의 장래 수준을 중위, 고위, 저위로 설정 인구성장(규모) 측면에서 중위가정의 조합을 중위, 가장 큰 시나리오인 경우 고위, 가장 작은 경우 시나리오인 경우 저위로 설정. 즉, 인구를 가장 많이 성장시키는 가정을 고위, 가장 낮은 성장을 저위, 현재의 추세를 따라 성장할 경우 중위 가정임. 기본가정은 중위가정임

기대수명은 유아 및 청년 사망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반면, 최빈사망연령은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한 연령을 지칭하여 평균적인 100세 사회의 도래를 보여주는 데 적합한 지표이기 때문이다(Korea Information Strategy Development Institute, 2011).

그동안 고령화 사회로 진전하면서 그 영향을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팽배하였다. '인구의 시한폭탄(demographic time bomb)', '인구 지진(population earthquake)', '고령화 충격(aging shock)'이라는 말로 표현할 정도로 고령화를 인류 발전에 위협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S. Choi(2011)는 이러한 부정적 주장들이 ① 경제적 위기와 복지국가 프로그램 확산에 따른 사회적 비용문제가 나타나면서 노인인구가 사회적 자원을 소진시키는 가장 큰 인구집단이라는 희생양이 된 점, ② 개인 고령화가 빈곤, 외로움, 질병, 무위의 부정적 모습과 연계되어 그런 모습의 노인인구가 대량으로 존재할 것에 대한 두려움, ③ 노화과정의 지연과 예방이 상당정도 가능한 과학적 연구결과를 무시한 점, ④ 노인과 노화과정에 대한 비과학적 편견과 고정관념에 근거한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우리사회가 맞이하게 될 고령화 사회는 이러한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연령통합적 사회체계 모형'에 근거하는데, 이는 모든 연령층이나 모든 세대를 사회체계 속에 참여시키는 한편 생애과정을 통한 훈련과 교육을 통해 노년기에도 생산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수용하여 노인의 생산성 발휘의 능력에 따라 적합한 역할을 부여하는 관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100세 사회란 100세 장수가 보편화되는 시대를 말하며, 100세 고령자집단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를 사는 모든 세대를 포괄하는 것으로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모든 연령대의 사회구성원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애계획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최근의 100세 사회 연구에서는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활기차고 준비된 장수사회를 목표로 하여, 모든 사람들이 보람과 품격을 갖춘 삶을 살 권리에서 출발하면서도 고비용 장수사회가 아닌 적정 비용 장수사회를 지향하고자 한다. 즉 '활기차고 준비된 장수사회'를 목표로 정부 주도형 대안을 넘어 모든 사회 계층 및 세대가 참여해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Korea Information Strategy Development Institute, 2011).

이와 같이 100세 사회는 고령자를 사회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보편적·시혜적 복지가 아닌 개인의 노력이 전제된 선택적·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며, 고령자 등 특정 세대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세대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고령화 사회'와 구별되며, 이런 점에서 새로운 사회표준을 만든다는 적극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 2. 노년기 가족생활 전망

100세 사회의 가족생활 전망에 앞서 100세 사회의 고령자가 될 중년기 세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G. Han, H. Choi, K. Eun, J. Lee, S. Joo, & J. Kim(2011)의 한국 베이비부머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평균 25세에 결혼했고 결혼한 지 약 1년 후 첫아이를 낳았다. 평균 자녀는 2명(1.92명) 정도이며, 첫째를 출산하고 막내를 출산하기까지 3년 내외가 소요되었으며 연령으로는 30세 내외가 된다. 30대 중반에 첫째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 40대 초반에는 중학생, 40대 중반에는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를 두게 되었다. 이 여성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자녀를 적게 출산해 자녀 출산기가 부모 세대에 비해 약 1/3로 축소되었고 자녀 양육기도 짧아졌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자녀 독립 후 부부만 생활하는 빈둥우리 시기가 19.4년으로 부모 세대의 1.4년에 비해 무려 14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에 따르면 부부관계가 빈둥우리 시기 이후 노년기의 생활에서 차지하게 될 비중과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 가족에서는 부부관계보다 부모자녀관계가 더 핵심적인 위상을 차지하며 부모 자녀 간의 동일시나 일체감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로서의 역할 보다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우선시하게 되고, 자녀교육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십을 형성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 역할을 우선시하던 부부가 노년기에 그 역할의 중요성이 감소하게 되면 부부관계의 부적응이나 상호 소외감을 경험하기 쉽다. 그러나 오랜 기간을 통해 쌓아 온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부부관계를 다시 정립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S. Lee & H. Kim, 2009).

노년기의 세대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노년기에도 부모자녀관계가 단절되거나 노인들이 가족관계로부터 소외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OECD의 2030년 가족의 미래 보고서(OECD International Futures Programme, 2008)에서도 보고하듯이 세대 간 유대는 놀라울 정도의 강도와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 노년기의 세대관계에 대한 서구의 연구들은 예상과는 다르게 산업화와 핵가족화가 노인세대의 고립을 초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세대 간 접촉 빈도와 다양한 교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G. Han & J. Lee, 2012). 세대 간의 교환은 주로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0)에 따르면, 65세 이하 노인의 70%가 비동거 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61.4%가 비동거 자녀에게 정서적 지원

을 주고 있다. 도구적 지원을 받는 경우는 46.1%, 주는 경우는 11.3%이며, 경제적 지원은 정기적인 현금지원이 37.0%, 비정기적인 현금지원이 93.0%, 현물지원이 90.6%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노부모가 비동거 자녀에게 주는 경제적 지원도 정기적 현금지원 0.9%, 비정기적 현금 지원이 23.7%, 현물지원이 58.5%로 나타나,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없지만 다른 유형의 지원은 적지 않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노년기 돌봄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가족 돌봄자를 대상으로 돌봄노동의 실태를 파악하거나 돌봄 스트레스, 만족도,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서비스의 효과성 등을 살펴보았다. 가족 돌봄자를 대상으로 노인 돌봄노동시간 및 스트레스를 살펴본 연구(Y. Kim, 2007; D. Kim, S. Park, & S. Kim, 2010; K. Suh & K. Chun, 2009; H. Chang, S. Hong, S. Lee, Y. Kim, E. Kang, & K. Kim, 2006)에 따르면, 가족 내에서 노인 돌봄의 주 제공자는 배우자, 며느리, 딸 등 주로 여성이고, 가족 돌봄자의 건강상태가 돌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돌봄 노동시간이 길수록 스트레스는 높아졌다. 돌봄 노동 여성의 욕구와 노인요양보장정책을 살펴본 연구(Y. Park, 2007)에 따르면, 돌봄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집단은 취업 중단을 경험한 가족 수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부양자의 부양부담이 이들의 신체증상과 우울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혼자녀세대는 부모가 연로해지거나 건강이 나빠질 경우에 예상되는 동거 부양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가족유형별 돌봄서비스 이용 의향에 관한 연구(E. Kim & S. Lee, 2010)에 따르면, 노인 독거가족이 노인 부부가족이나 자녀 동거가족에 비해 돌봄서비스 이용 의향이 높았고, 생활시설을 통한 돌봄서비스, 지역사회 이용시설 돌봄서비스, 재택 돌봄서비스 중 자신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선택할 때는 서비스 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전과 이후라는 시간 차이를 두고 제도의 효과성을 이용자의 경험과 주관적 해석을 통해 살펴본 연구(K. Shin, 2010)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전 노인과 가족구성원들은 모두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이해받지 못하는 소통 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생각했으나, 제도 시행 이후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게 된 시간적 여유나 신체적, 정서적 돌봄 욕구의 충족 덕분에 노인과 가족구성원은 자신들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며 내면의 분노를 완화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보호사와 노인은 유사가족적 친밀성을 경험하면서 자식들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대체하고 있었다.

기존의 연구들은 노년기 가족 돌봄의 부담과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를 탈가족화하는 서비스와 정책이 개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노년기를 돌봄이 필요한

시기로 전제하고 이 시기의 돌봄을 가족과 사회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룬다. 그런데 가족의 미래를 전망하는 연구들을 보면, 현재와 같이 대면적이고 직접적인 돌봄의 부모 부양 방식은 약화되거나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H. Chang, E. Kim, Y. Kim, H. Kim, & J. Chung, 2011). 세대별 노후부양관의 차이를 살펴본 J. Seok(2009)의 연구에서도, 노후부양책임을 가족의무로 여기는 노령세대와는 달리, 젊은 세대일수록 노후부양책임을 개인책임으로 여기고 있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노후부양책임을 개인책임이기보다 가족책임과 국가책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으로의 노인세대는 건강과 경제적 수준의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노인들과 다르게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기나 정도가 다를 것으로도 예상한다(S. Lee, 2012).

이러한 연구들은 향후 노년기의 돌봄 방식이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노년기 자체가 확장되면서 가족의 신체적 돌봄에 의존하는 시기가 비례하여 증가하기 보다는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으며, 신체적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시기에 다른 유형의 돌봄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물론 현재 가족의 돌봄을 받고 있는 노인들과 그 가족에 대해 장기요양보험제도이나 주간보호시설과 같은 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겠지만, 100세 사회의 가족 돌봄에 대해서는 새로운 관점에서의 서비스가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방법 및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100세 사회에 대한 예비사회화 과정 없이 100세의 노년기에 진입해야 하는 40대~60대 남녀를 대상으로 백세사회에 대한 인식, 전망과 정책 요구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Focus Group Interview(FGI)를 실시하였다. FGI는 그룹 상호작용을 통하여 연구자가 정한 주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방법으로(Morgan, 1997), 새로운 연구 분야를 탐색할 때 사용되는 질적 조사방법이다. 특히 FGI는 단기간에 참여자들로부터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많은 양의 집중적인 대화를 유도해 내며, 참여자들의 견해, 경험, 관점 등을 이끌어내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S. Hong, K. Ha & M. Kim, 2013).

FGI는 2012년 10월 과 11월 사이에 실시되었다. FGI에서는 참여자의 구성과 집단의 수를 고려해야 하는데(Morgan, 1997), 비교적 동질적인 사람들로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즉 동질적인 집단 내에서는 연구참여자들 간에 대화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으며, 집단과 집단 간 인식 차이에 대한 검증도 용이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대, 직업,

거주지역이 유사한 40대 여성 1팀, 50대 여성 1팀, 60대 여성 1팀과, 40-50대 남성 2팀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절차는 Kruger(1999)의 포커스 그룹 4단계 과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1단계에서는 면접자들을 모아 면접의 방향이나 질문 내용을 합의하면서 면접 상황에서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2단계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동의 하에 면접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연구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본인의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면접 상황을 조성하였으며, 애매한 답을 하는 경우에는 질문을 하거나 연구 참여자의 진술을 다시 반복하면서 면접 내용을 분명히 하도록 하였다. FGI 집단면접에서는 100세 사회에 대한 느낌과 생각, 노년기 생활에 대한 전망, 가족관계에 대한 전망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면접을 이끌어갔다. 100세 사회의 가족생활 전망을 위해 100세 사회에 대한 개념, 예상 시기, 100세 사회 가족의 모습(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가족정책에 대해 질문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면접은 평균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3단계에서는 면접 내용에서 드러난 중요한 주제를 점검하였으며,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일지에 기록하였다. 4단계에서는 녹음

한 면접 내용을 전사하였으며, 전사한 녹취록을 중심으로 연구자들이 유사한 내용을 코드화하였다.

2.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에 제시되어 있듯이 여성 13명, 남성 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여성의 경우 40대 4명, 50대 4명, 60대 5명이었으며, 남성의 경우 40대 2명, 50대 6명이었다. 여성의 경우 전업주부가 많아 7명이었으며, 판매직 5명, 사업 1명이었고, 남성의 경우 생산직 4명, 자영업 4명이었다. 거주지는 여성의 경우 모두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였으며, 남성은 광주광역시 및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반반이었다. 가족구성을 보면, 여성의 경우 2명을 제외한 모든 참여자가 유배우 상태였으며, 남성의 경우 사별자 1명과 가족관계를 밝히지 않은 사람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배우 상태였다. 여성의 경우 4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성인자녀가 있었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5명에게 미성년자녀가 있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Focus Group Interview Participants

	(age)	occupation	Residence Area	Family Members (age)
Married Women Group 1	A-1(48)	housewife	Seoul	spouse(55) daughters(24, 18)
	A-2(44)	housewife	Seoul	spouse(48) daughter(17)
	A-3(46)	business	Seoul	daughter(17) son(12)
	A-4(48)	housewife	Seoul	spouse(52) daughter(23) son(18)
Married Women Group 2	B-1(59)	housewife	Kyung-Gi Do	spouse(63) sons(35, 33)
	B-2(56)	housewife	Kyung-Gi Do	spouse(58) sons(32, 28)
	B-3(51)	housewife	Kyung-Gi Do	spouse(54) daughters(26, 24)
	B-4(57)	housewife	Seoul	spouse(67) daughter(34) son(32)
Married Women Group 3	C-1(63)	sales person	Seoul	spouse(70) sons(35, 33)
	C-2(64)	sales person	Seoul	spouse(65) son(37) daughter(36)
	C-3(64)	sales person	Seoul	spouse(65) sons(30's, 30's)
	C-4(62)	sales person	Kyung-Gi Do	daughters(40, 38) son(36)
	C-5(64)	sales person	Kyung-Gi Do	spouse(66) sons(38, 37)
Married Men Group 1	D-1(51)	blue collar	Gwangju Metropolitan	spouse(47) sons(18, 16/16)
	D-2(54)	blue collar	Gwangju Metropolitan	spouse(49) son(24) daughter(20)
	D-3(44)	blue collar	Gwangju Metropolitan	n. a.
	D-4(48)	blue collar	Gwangju Metropolitan	spouse(45) son(21) daughter(17)
Married Men Group 2	E-1(51)	small business	Seoul	spouse(50) daughter(19)
	E-2(51)	small business	Seoul	daughter(22)
	E-3(50)	small business	Seoul	spouse(49) daughters(18, 16) son(13)
	E-4(51)	small business	Seoul	spouse(47) sons(22, 19)

Table 2. Family Life Prospect toward Centenarian Society

main themes	sub-themes
Centenarian Society Outlook	Unfamiliar and unstable future The need for jobs and a pastime
Family Life Outlook in Centenarian Society	Marital Relationship Parent-child relationship Care of the elderly
Relationship with the community and need for community in Centenarian Society	The need for community facilities Alternative lifestyle
The need for family life education in Centenarian Society	Family life education in terms of life perspective Family life education for men

3.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방법으로는 주제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제 분석은 특정한 이론적 틀을 따라가기 보다는 자료를 읽으면서 나타나는 중심 주제를 찾고, 이 주제를 근거로 다시 자료들을 재검토하면서 관련된 소주제들을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서 중심 개념들을 도출하고 주제들을 확정해가는 과정이다(S. Hong et al., 2013).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제는 크게 네 영역에 걸쳐 있다. 네 가지 영역은 100세사회 전망, 100세 사회 가족생활 전망, 100세사회 지역사회와의 관계 및 요구, 100세사회 가족생활교육에 대한 요구이다. 각 영역별 주제를 보면, 100세 사회 전망 영역에서는 생소하고 불안한 미래, 일자리와 소일거리에 대한 요구, 100세 사회 가족생활 전망 영역에서는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노후 돌봄, 지역사회와의 관계 및 요구 영역에서는 지역사회 시설과 대안적 생활양식, 100세 사회 가족생활교육에 대한 요구 영역에서는 생애적 관점의 가족생활 교육과 남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이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Table 2>와 같다.

IV. 연구결과

고령자가 될 중년기 세대의 연구참여자들이 가지는 주관적 전망을 살펴 보고 100세 사회관점에서 현재의 삶과 노후를 삶을 어떻게 전망하는가를 네 가지 영역에서 도출된 주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100세 사회 전망 ; 생소하고 불안한 미래, 일자리와 소일거리에 대한 요구

면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100세 사회에 대한 전망 및 기본 생활 요구 영역에서는 “생소하고 먼 미래와 구체적인 불안감” 그리고 “일 할 데가 있다 이것이 중요하지.” 두 가지 주

제가 두드러졌다. 먼저, 100세사회에 대한 전망은 연령에 따라 다소 상이한 인식과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 40대인 경우에는 ‘생소하고 먼 미래’(A-3)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까지 자신의 생활에서 100세 사회를 현실감 있게 지각하지 않고 있었다. 다만 부모님의 나이를 생각하면서 100세 사회가 아주 먼 미래만은 아니라고 느끼는 정도였다.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100세가... 너무 먼 얘기고, 100살까지 살아서, 뭐 누워만 있어서, 그런 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막상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정말 얼마 안남은 일이구나.. 곧 다가올 일이구나 싶어요.” (A-2)

그러나 50대인 경우에는 여성, 남성 상관없이 40대 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100세를 인식하였는데, 내면에 깔려있는 감정은 불안감이었다. 그 원인은 100세 삶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100세 사회를 맞이해야 한다는 데서 오는 ‘불안감’(B-1, B-2)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편 노후 준비의 일차적 책임감을 가지는 가장으로서 50대 남성이 갖는 100세 사회의 불안감은 더 컸다. 특히 이러한 불안감을 크게 가지는 연구참여자들은 생산직에 근무하는 경우나 조기에 은퇴가 예상되는 기업의 근무자들이다. 생산직 근무자들은 ‘진이 다 빠진 다음에 여생을 어떻게 버틸 것이냐’(D-2)는 표현처럼 육체가 노동력 재생산의 기본이 되는 상황에서 경제력과 체력 측면에서 기운이 소진해 지는 노년기에 소득을 기대할 수는 없고 노후 준비도 하지 못 한 데에서 오는 불안감이며, 조기 은퇴가 예상되는 기업의 근무자들은 가족생활 주기상 양육기가 종료되지 않아 추가적 지출이 필요하되 긴 여생에 대한 준비의 여력은 없는 데에서 오는 불안감이다.

“100세 사회다 실감을 하는 게, 요새 저희 애들 아빠 나이에 부고장이 오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그냥 70, 80이었는데 요새는 60에 오고, 90에 와요. 60에 사람들이,

보면 친구들이 돌아가신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90에 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오시니까. 지금 벌써 90 이상을 다 산다는 건데... 그 삶이, 보편은 그 집집마다 보편은 그래도 자식이 잘 살면은 어느 정도는 되는데, 못 살면은 그게 참 난감하고. 근데 우리도 그렇게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세대는 다 준비들을 안 해놓은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우리는 더 비참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B-2)

"저는 100세하면 덜컥 겁이나요.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정년은 55세이거든요. 아무래도 자녀들이 어리고 그렇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노동을 해서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역시 나이가 들면 체력적으로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기운이 떨어지잖아요.....그런데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이 그래도 경제력이거든요. 돈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노후에 대해서 설계를 할 수도 있고, 그것이 가능하지만은, 정말로 체력이 다할 때까지 별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은 100세가 겁이 날 수밖에 없지요. 진이 다 빠진 다음에 여생을 어떻게 버틸 것이냐, 그런 것이거든요."(D-2)

6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100세 사회를 가장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있었다. 이들의 구체적인 현실감은 이미 은퇴를 경험함에 따른 것으로서 100세 사회가 본인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건강과 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중시하였다. "노령사회가 젊은 사람보다 노인네가 더 많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으면 뭐해,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C-5). "100세까지 살게 된다면 60대는 노인이라 할 수 없는데, 근데 이 사회가 그렇게 안 만들잖아 지금. 벌써 55세에 벌써부터 퇴직들을 해서. 한 참 일할 나이에 노인네 행세를 하고 앉았으니 난 그거(퇴직 연령) 먼저 고쳐주면 될 것 같더라고요" (C-5)

100세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되어 가는 경향이 있고, 그 내면의 정서는 경제력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구참여자들은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이 연장되어야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음을 함축한다.

두 번째 주제인 "일 할 데가 있다 이것이 중요하지..."는 100세 사회의 기본적인 생활 요구로서 일자리와 소일거리에 대한 요구였다. 특히 50대, 60대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70대, 80대, 90대별로 건강에 맞는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100세 사회에서는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이야기하는, 79세에도 봉사를 다니시며 갈 곳이 있어 즐거워하는 어

머님의 사례(B-1), 밖으로 돌아다녀야 잠념이 없어 오래 산다는 아버님의 사례(E-4)에서 볼 수 있듯이, 소일거리는 100세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노인들에게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젊은 사람 인건비의 반만 받고도 일해야 한다는 주장(C-5)에서 알 수 있듯이 노인들에게 일의 의미는 자녀 양육기에 절실하게 필요했던 돈벌이 그 이상의 복합적인 것이다. "노인들은, 돈은 모르겠어. 생활이 달라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돈에는 별로 구애를 안 받아요.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만 일단 출근할 데가 있다, 일 할 데가 있다 이것이 중요하지.... 젊은 사람 100만원 준다면 이런 사람은 50만원만 줘도."(C-5) 노인의 연령층을 70세 이전과 70세 이후 두 집단으로 나누고 70세 이전에는 소득활동으로서 일을 하다가, 70세 이후에는 사회참여활동으로서 소일거리로 전환되는 모델(B-4)을 제시한 참여자도 있다.

"일반 회사들은 길어봐야 높은 직급 아니면 보통 육십에서 끝나잖아요.....그러면 70(세), 80(세), 90(세)을 살아야 하는데, 이걸 이제 국가에서 책임지는 연령이에요. 그러면 이걸 체계적으로 70대에서는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하고. 그것도 좋지만, 70대에서는 어느 일을 하고 국가에서 공공근로로. 또 80대는 연세가 있으니까 그거보다 더 쉬운 일을 하고..... 그런 게 있어야 우리가 살면서 100세 시대를 얘기하는 거지. 무턱대고 100세 산다. 그건 아니죠."(E-1)

다시 표현하자면 100세 사회를 전망하면서 당사자들이 살아갈 미래에 100세를 살게 되니까 일자리가 중요하고 또 한편 100세를 살기 위해서라도 일자리가 꼭 필요한 '앙코르 커리어'의 특성을 감지하고 있었다.

## 2. 100세 사회 가족생활 전망 ;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노후 돌봄

가족생활에 대한 전망은 부부관계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노후 돌봄에 대한 기대의 측면에서 세 가지 주제가 부각되었다. 먼저, 부부관계의 주제는 "같이 공유하기를 원하는 바램 vs. 서로 잔소리한다고 싫어해요"로 정리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100세 사회의 가족생활에서는 부부관계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즉 자녀가 독립하게 되면서 부부만 남게 되면, 당연히 부부관계가 중요해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으며, 특히 부부가 함께 할 취미나 활동, 일상적 가사나 생활을 중심으로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인식(A-3, B-1, E-3)하고 있었다. 남편이 퇴직한 50대 여성 연구참여자는 퇴직 후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과 부부모임이 많아져 예전에 따로

따로 보내던 생활방식이 부부가 함께하는 생활방식으로 변하고 있다(B-1)고 하였다.

“한 20년 후로 보면 애들이 어느 정도 성인이고, 우리는 이제 노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때 생활의 모습이 이제 아이들을 출가를 시켰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남는 건 부부... 둘이 남은 부부가 정말 갈수록 뜻이 맞아서, 취미라든지, 우리는 아무래도 신앙을 같이 갖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이나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기를 원하는 바램이죠.”(A-3)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모모임이 많아요....이게 퇴직들을 하고 다니는 부모모임으로 돌아가더라고요....그러니까는 이제 남자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 것도 있지만, 갈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갈수록 같이 가는 데가 많고, 놀러 가는 것도. 이게 뭐 젊었을 때는 따로따로 가지만은, 항상 놀러가는 것도 같이 가게 되더라고요.”(B-1)

그러나 이러한 부부 중심의 인식과는 달리 퇴직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재편으로 인해 변화하는 부부관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나 의사소통에서 불편함을 경험하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고(c-5), 현재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60대 여성의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하는 생활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으며, 서로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도 했다(C-3).

“저는 같이 퇴직하려고 했거든요. 같이 하려고 양평으로 아예 들어가 버렸는데, 주위에서 막 그만 두면 후회한다고 그만 두지 말라고. 그래서 진짜 그냥, 그냥해서 여태까지 왔는데, 그만 안 둔 것이 천만다행이고...어쨌든 며칠 같이 있어보면, 아니에요... (중략)... 서로 잔소리한다고 싫어해요.”(C-5)

“타고난 성격이 외골수로 살아서 지 하나로만 태어나가지고. 뭐랄까. 상대가 안돼. 대화가 안돼.... (중략) 헤어질 생각 하죠. 했죠. 벌써 뭐 옛날부터. 체념한지 오래 됐어요... 요즘에는 좀 뭐랄까, 각자 인생을 살아요.”(C-3)

연구참여자들의 전망은 100세 사회의 가족생활이 부부를 중심으로 재구성될 것이라는 대중적 전망을 반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부부중심 일상생활의 재구성 과정에서 맞이하는 새로운 적응의 이슈가 100세 사회를 맞이하는 중년기의 과

제로서 해법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생활전망의 두 번째 주제는 자녀와의 관계 측면으로서 먼저 자녀로부터의 노후 돌봄에 대한 기대 감소를 의미하는 “자식한테는 기대를 안하죠... 네버야 진짜”로 표현할 수 있다. “자식보다는 보험에 의지한다”(B-1), “자식들에게 부모로서 해줄 것은 해주지만 자녀에게 기대는 안한다”(E-3), “자식에게 애인 생기고 취직하면 자식에 대한 기대는 버린다”(E-4)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녀가 자신의 노후를 돌볼 것이라는 기대는 거의 갖지 않았다. 이러한 자녀로부터의 노후 돌봄에 대한 낮은 기대는 자녀에게 부모가 일반적으로 베풀고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다짐과 더불어 자녀들에 대한 낮은 기대를 보상할 노후 돌봄에 대한 다른 기대들에 대한 관망을 보여주었다.

“자식한테는 기대를 안하죠. 그러니까, 기대를 안하니깐은 보험에서도 이제 간병비가 나와요. 24시간 간병을 할 수 있는. 이제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들도 좀 있고. 그러다보니까 24시간 간병에 대해 관심이 엄청 많아졌어요. 자식이 나를 24시간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네버야 진짜” (B-1)

“그게 다 뭐여 부모들이 자기들이 고생했으니까 새끼들은 고생 안 시킨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한테 베풀었음 베풀었지, 자식들이 우리에게? 다음에 없어요. 나는 없다고 봐요” (E-3)

자녀와의 관계측면의 다른 주제는 자녀에 대한 지원 감소와 손자녀돌봄이었다. “현 상태로는 유산으로 별로 줄게 없을 거 같아요 vs. 봐줘야 될 상황이면 봐줘야 할 것 같아요”라는 자녀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주제는 지속적인 생활비의 상승과 더불어 일자리의 안정성 저하로 인하여 세대간 자원이전이 감소할 것이라는 특성을 보여준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한계를 전망할 때, 경제적인 면에서 유산상속을 크게 해주지는 않지만, 독립적인 경제력을 갖추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준다든지(A-3), 사고나 벌금을 내야할 때와 같이 정말 힘들 때는 도와주는 정도로 부모가 지원해 주어야한다(E-2)고 생각하고 있다.

“경제적인 거를 얘기한다면, 현 상태로는 유산으로 별로 줄게 없을 거 같아요. (웃음) 사실 저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고, 자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때, 정말 그 사회인으로서 사회에서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주고 싶어요.” (A-3).



현재 50대인 한 여성은 자신들이 샌드위치세대로서 부모도 부양하고 자식도 부양해야하는 이중적 부양 부담을 떠안는 불행한 세대이지만, 자식들은 자신들보다 더 불행한 세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B-2)

“저희 동네 사우나가 있어요.....저희가 거기 가서 아이고 우리가 시집살이 제일 많이 했다고, 우리가 노인네들 모시는 마지막 세대고, 자식에게 버림받는 마지막 세대다. 너희가 우리 봉양을 하겠느냐. 그랬더니 30대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자기네가 제일 불행하다는 거예요.....자기네 부모는 내가 100세까지 살으니까 니네 못 준다, 못 한다 그러니까 자기네는 받지도 못하고. 그 대신 그 어르신 분들이 그 100세까지 살 준비를 해 놔느냐 하면 안 해 놔다는 거야. 그러면 한 80세까지만 살면 나머지는 자기네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길 듣고. 아 맞다...그러니까 다 자기의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불행하대요.” (B-2)

한편, 자녀에 대한 지원의 주제에서 여성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에 대한 지원의 한 형태로 손자녀 돌봐주기를 중요한 이슈로 언급하였다. 손자녀 돌봄과 관련한 입장은 세 가지로 나누어졌는데, 우선 자녀들이 맞벌이를 할 경우에는 손자녀를 조부모가 돌봐주어야 한다는 입장(A-2, C-5)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부모가 직접 키우고 불가피한 상황이나 힘들 때 조부모가 가끔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자녀를 지원한다는 입장(A-3),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식은 부모가 직접 키워야한다는 입장(A-1, A-4, C-2)으로 대별되었다. 이렇게 입장은 세 가지로 나뉘지만 여성 연구참여자들은 인터뷰 속에서 공통적으로 손자녀돌보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다.

“봐줘야 될 상황이면 봐줘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젊은 사람들은 일을 해야 하잖아. 그러면 애 맡길 데가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직장에 나가면 일이 제대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일을 제대로 해야 이 사회도 뭐가 되고 하는데. 일을 제대로 못 할 것 같으니까...” (C-5)

“전폭적으로 다 나한테 맡겨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조그마한 도움을 받는 것도 감사하고, 나를 존중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에서 도와주고 싶고. 애가 자기 삶을 꾸려나가는데 지치잖아요? 지칠 때, 보통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비타민 주사를 맞는다든지, 링거를 맞는다든지. 그런 정도로...” (A-3)

“저는 아니에요. 저는 엄마가 애기를 어느 순간까지는 키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며느리 들어왔히고 우리

딸이 다음 달에 애기 낳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다니고 안 다녀요. 그만 두라고 했어요.” (C-2)

이처럼 100세 사회 가족생활의 전망에서 자녀에게 지원할 부분은 감소하리라는 전망과 더불어 부모로서 자녀의 자녀들을 볼봐줄 책임과 부담은 가지고 있다. 부모 부양과 자녀 부양이라는 이중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샌드위치 세대인 50-60대와 이들을 부모로 두고 있는 현재 30~40대의 세대 간 자원 교환방식이 이전과는 상이하게 윗세대가 물질적 자원을 아래세대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교환이 아니라 윗세대의 일방적 지원으로서 손자녀돌봄의 제공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가족생활에 대한 전망의 세 번째 주제는 노후 돌봄에 대한 전망으로서 “시설로 가야 할 것 같아” vs “시설에 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라는 표현으로 귀결된다. 연구참여자들은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가족 내에서는 자녀보다는 배우자에게 의존하고, 상황이 악화되어 가족 내에서 해소할 수 없게 되면 시설에 의존하겠다는 인식이 지배적(A-1, C-2)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요양원 같은 시설을 선택하는 것은 가족 돌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으로, 마음 내키는 선택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픈 가족을 가족 내에서 돌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변에 오랫동안 아픈 가족을 돌보는 사람들을 ‘공자’(E-1)또는 ‘돌연변이’(E-4)로 묘사하면서 시설 돌봄을 보편적 대안으로서 전망하였다.

“저는 자녀들도 자기 생활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제가 할 수 있으면 하는데, 못 할 경우가 있잖아요. 체력적으로 안 되거나 경제적으로 안 되거나, 그럴 땐 도움을 받아야 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요양원을 가서 나라의 도움을 좀 받아서...(중략) 그런 것도 내가 마음으로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야 자식도 안 섭섭해 하고, 나도 안 섭섭하교” (A-1)

“시설로 가야 할 것 같아. 우리 며느리가 날 봐주겠어? 우리 딸한테 짐을 주겠어?” (C-2)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해줘요. 내 부모니까. 근데 이게 길어지면 남편도. 아무리 한 평생 날 밥해주고 그랬지만, 길어지면 어느 정도까지는 하지만은 어느 정도에서는. 뭐 텔레비전에서 보면 십년 동안 손발 씻겨주고 하는 건 공자들이고...” (E-1)

“우리 사촌동생은 지금 시아버지를 17년인가 모시는데, 아파트에 살면서도 그게 소문이 나서 효부상 주는데...그런 사람들이 한 명씩 있다니까 돌연변이들이...” (E-4)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돌봄이 필요할 경우 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여전히 가족에 의지하고 싶은 기대 즉 가족의 돌봄이 가능성이 낮지만 최선의 대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여성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에서 나타나 있듯이, 부인이 아플 때 남편이 돌봐주는 모습이 제일 아름답다(A-3)거나 요양원에 갈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해두어야 섭섭하지 않다(A-1)거나, 마음과 머리가 따로 노는 과도기적 상태(A-2)라고 표현하는 데에서 여전히 가족에 대한 의존과 기대가 강하게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그 부부간에 한 명이 아팠을 때에는 가장 아름답게 보이고, 하는 게 부부예요. 부부가 도와주는 게 가장 아름답더라고요. TV에서 아침에 하는 거, 치매 걸린 부인을 남편이 돌보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너무나,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A-3)

“저희 남편은 특이하게 워낙 잘하기 때문에...(나를) 돌봐주지않을까, 나도 물론 돌봐줄 생각이 있고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또 자식에게 짐을 지우기 보다는 공공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과도기적인 단계가 있어서. 머릿속으로는 그거를 원하기는 하지만, 마음속으로 깊이 보면 가족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마음과 머리가 따로 노는 그런 상태...” (A-2)

남성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시설에 대한 거부감이 여성 연구참여자들보다 더욱 강하게 드러났다. 남성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시설에 가느니 시골에 가겠다(D-2), 몸이 아파도 집사람하고 같이 집에 있는 게 편할 것 같다(D-3)는 식으로 시설에 대한 거부감을 보여주었다.

“나도 그러거든요. 시설이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끌려서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자식한테 거기 사세요, 할 것 같든지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원해서 몸이 좀 거동이 불편하다고 해서 ‘아 우리 시설 가세’ 그런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편하면 우리 집이 편하거든요. 집사람하고 같이 몸이 좀 아파도 같이 있는 게 편할 것 같아요.” (D-3)

연구참여자들은 100세 사회에서는 노후 자신에 대한 돌봄이 자녀가 아닌 배우자 중심 돌봄이 보편적일 것이며, 그 외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자녀 돌봄을 기대하지만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으나 여성 연구참여자들은 시설 돌봄을 수용하는 반면, 남성 연구참여자들은 여전히 현실과 무관하게 가족 돌봄을 기대하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노후 개인 돌봄의 사회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자녀에 의한 가족돌봄이 불가능한 물리적인 조건을 충족하면서도 여전히 가족의 정서적 돌봄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안의 창출이 100세 사회의 돌봄을 비판적으로 전망하는 중년기 당사자들과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하겠다.

### 3. 100세 사회, 지역사회와의 관계 및 요구 ; 지역사회 시설과 대안적 생활양식

100세 사회 지역사회와의 관계 및 요구에 대한 전망으로는 지역사회 시설에 대한 요구와 대안적인 생활양식에 관한 두 가지 주제가 두드러졌다. 먼저, 지역사회 시설에 대한 요구는 “국가에서 하는 요양시설, 노인공동쉼터,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노인정”이라는 표현에서 살펴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싫든 좋든 100세 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할 때는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 돌봄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70이 되어도 집에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일을 안 해도 어디 여가로 나가서 활동도 하고 음악교실 다니고 자꾸 이렇게 대화를 남들하고 해야지 아프지도 않고 치매도 안 오고 그렇지,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우울증 오고 병이 생기고 치매가 일단 오더라고요.”(C-4)라는 진술처럼 노년기가 되어도 집에 있으면 질병이 생기며, 남들과 교류하면서 활동을 해야 한다는 사회활동설이 연구참여자들 사이에 우세하였다. 사회활동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드러냈는데, 지역사회 노인이용시설은 저렴한 가격의 실버타운을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B-2), 노인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동쉼터가 필요하다(E-1), 노인정을 새롭게 계획하여 활용도를 높여야한다(E-4)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 어느 선이 되면은 요양시설을 해 갖고 그쪽에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또 보통 (본인이 원하면) 본인이 원하면. 근데 요새는 지금 한 80, 90 되시는 분은 본인이 안 원해요. 무조건 가족하고 살아야 한다는 게 문젠데, 저희 나이라는 스스로 가길 원해요. 다들 물어보면 아오, 돈이 되면 요양시설을 다 가겠다고 하니까지는 그 국가에서 하는 요양시설, 그거를 많이 장려를 하면은 (시설도 좋게 하고) 가격도 좀 싸게 하면은 될 거 같은데” (B-2)

“그러니까 동네에 공동 컴퓨터를 만들어 줘가지고 오전에 햇빛도 좀 보고 오후엔 어디 좀 가서 같이 동네 그룹끼리 뭐 좀 하고 조금 조금씩 몸을 쓸 수 있게 해줘야 되지.” (E-1)

“지금 노인정 같은 시설을 더 나은 시설로 계획을 해줘야하지..안 가죠. 지금 노인정 같은걸 하되 계획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주면은 화투는 안치지 않겠나 이거지. 안치고 다른 걸 업으로 해서 활용하면 되지 않겠나 이거지. 레크리에이션 같은 것도 개발하고.” (E-4)

그리고 100세 사회에서는 하드웨어인 시설 외에도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이 노인에 맞춤형으로 개발, 보급되어야 한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인식은 노인의 체력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A-2)이나 노인이 되기 전에 미리 교육을 통해 부부가 노후의 여가생활을 준비할 필요도 있다(D-4)는 의견을 통해 들어다 볼 수 있다.

“운동에 대한 얘기는 나도 생각해본 게 있는데.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보통 헬스장을 가세요. 처음엔 등산을 가거나, 골프를 치시는데, 이제 몸이 힘들니까, 그런 활동들이 줄면서, 같이 다닐 친구들이 없어지면서, 동네 헬스장을 가시는데, 가보면 막상 노인의 몸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 만약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인을 운동시킨다면, 노인에 수준에 맞는 관절 운동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A-2)

“제가 봤을 때는 여유가 있으신 분 같은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파트 주위만 돌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돌고, 서로 찾기만 하고 그러시네요. 그런 것을 보던 더 늙기 전에 어렸을 때 좀 할 수 있었던 일을...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배웠으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서라도 할 수 있고, 했었을 건데...그래서 저도 뭐 할까, 나이 먹으면 뭐하지, 그런 생각을 이런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배워보고도 싶고. 와이프하고 같이 하려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또 취미가 안 맞다 보니까 하기 싫어요.” (D-4)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100세 사회에서는 시설 좋은 저렴한 보급형 돌봄 시설이 지역사회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여기에 덧붙여 공동 컴퓨터 같은 공간이나 시설 좋은 노인정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를 원하였다.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노인정이나 마을회관, 문화

센터 등에서 노인들을 위한 취미교실(A-1, B-4)이나, 노인수준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들(A-2)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러한 제안은 아직 노인으로서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나 그러한 소프트웨어가 양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하거나 질적으로 개선되어야만 한다는 인식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며, 100세사회 노후생활의 준비가 개인적인 것일 뿐 아니라 사회가 지지해주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함축한다.

지역사회와 관련된 두 번째 주제는 대안적인 생활양식으로서 “말이 통할 수 있는 친구들과하고 공동으로 모여서 사는 것도 참 괜찮겠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가족이나 시설이 아닌 대안적인 형태로 원룸에서의 독립적 생활(B-2)과 친구끼리의 공동체 생활(C-2, C-5)을 100세 사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제안하기도 하였다.

“저희 친정 엄마 동네에 원룸이 생겼어요.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애, 저기 원룸이 생겼는데 저기 도대체 누가 들어올까 그랬더니, 어느 날 가보니까는 원룸에서 할머니들이 줄줄줄줄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 여기 왜 사느냐 그랬더니, 그 할머니들이 이제 그 처음에는 그 지금 70이나 80되면 그 큰아들이나 작은 아들하고 산 세대예요, 많이. 자기가 큰 아들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큰며느리가 머리가 희끗희끗하더라요. 그래서 아들들을 불러놓고 내가 이만저만해서 보니까는 나는 몰랐는데 너네 형수가 머리가 희끗희끗하는데 나는 해방을 좀 시켜줘야지 되겠다. 그리고 이 할머니는 둘째가 불를래나, 셋째가 불를래나 그랬더니...그 원룸을 얻어놓고 용돈을 드리더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참 섭섭했는데, 자기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들이 그 원룸에 9분인가 몇 분이 사신대요... 그러고는 아들이 용돈 20만원을 주는 데 20만원으로 어떻게 생활하냐면, 고 옆에 또 그 교회에서 그 점심에 밥이 2000원인데 너무 잘 나온대요. 그래서 거기서 밥을 사먹고 노인네들끼리 낮에 모여가지고...그래도 그게 혼자 있는 것 보다 낫다네요.” (B-2)

“그러니까, 아프거나 해서 혼자 됐다고 하면 난 친구들과하고 사는 게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말이 통할 수 있는 친구들과하고 공동으로 모여서 사는 것도 참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C-2)

“1층 집에 멋쟁이 할머니 둘이 있어요. 근데 맨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친구래요. 아주 멋쟁이예요. 모자 딱 쓰고 옷도 얼마나 좋게 잘 입고 다

니는지 몰라... 그때 볼 때 완전히 할머니였어요. 70 훨씬 넘었을 거예요. 둘이서 그렇게 산대요, 친구들이서. 근데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건강만 하면 통하는 친구들이랑. 혼자가 되면. 같이 살면.” (C-5)

원룸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면서 어울린다는 점에서 ‘따로 또 같이’ 생활방식을 지향한다고 하겠다. 또한 건강하다면 마음이 맞는 친구와 함께 가족처럼 지내는 것도 새로운 생활양식으로 고려대상이 되었다. 특이한 것은 가족이 아닌 대안적 형태의 생활이 모두 여성들의 인터뷰 속에서 제안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기대수명이 보다 긴 여성노인들이 배우자 사후에 혼자 남게 될 여성들이 자신의 긴 노후를 걱정하면서 생각해 낸 새로운 삶의 방식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과연 당사자들이 이러한 대안적 삶을 주체적으로 뛰어 낼 역량이 있는지 희망하는 대안의 현실화에 사회가 어느 정도 어떤 방식의 지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강구하는 것이다.

#### 4. 100세 사회 가족생활교육에 대한 요구 ; 생애적 관점의 가족생활 교육과 남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

100세 사회 가족생활교육에 대한 요구는 생애적 관점의 가족생활교육 및 남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수렴하였다. 먼저, 100세 사회 가족생활을 전망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부모교육,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강하게 제기되었는데 그 내재적 특성을 모아보면, 생애적 관점을 반영한 가족생활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 연구참여자들이 특히 더 그동안의 가족생활 경험을 토대로, 부모됨, 부모됨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A-3, A-4, B-1, C-2)고 하였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길어진 가족생활주기를 생각하면 가족 형성 초기부터 부부관계나 부모자녀관계를 건강하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A-3, A-4, C-2)한 것이다. 또한 나이 드신 부모님을 보면서 노인준비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40대 여성(A-1)도 있었다. 노인에 대한 이해를 미리 하는 것이 부모님 뿐 아니라 본인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서, 아 이거는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할 문제가 아니구나, 왜 그러냐하면, 한 개인이 건강해야, 건강한 가정이 태어나고, 건강한 가정이 사회를 이루자나요? 그 사회가 국가를 이루고,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강한 남녀를 만나서 건강한 가족을 이루려면, 그 가족의 의미, 서로 감당해야 할 책임의 의무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그런데 이게 모르고 그냥, 부

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어서 도피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내가 결혼을 할 때, 무슨 생각으로 결혼을 했나 돌아봤을 때, 정말 아무 것도 한 게 없더라고요.” (A-3)

“캠퍼스에서, 대학에서, 교선 과목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결혼준비교육을, 사실은 저도 그런 교육 하나 없이 해봤지만, 다들 해보고 나니까, 경험해보니까, 결혼 전에 그런 거 정말 책들도 많이 나와요. 여자하고 남자는 너무나 다르니까, 나는 여자지만, 남자는 여자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걸 실감하지 못하고 결혼했고, 남자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런 교육들이, 이론적인 교육도, 실천을 할 때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A-4)

“우리가 노인 돼서, 남자나 여자나 노인 돼서 교육을 시킬 생각을 하지 말고, 정책을 조금 바꿔서 젊은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해요. 부부가 정말로 부부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를 교육시켜가지고 부부가 되어야 할 것 같아. 그냥 무조건 엄마야빠가 되는 게 아니라, 성인이 될 때 그런 부부가 될 수 있는. 잘 융화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부부교육을 시켜서 애기를 낳고 키우고 그래야 건강한 사회가 될 것 같아” (C-2)

이러한 가족생활교육에 대한 전망에서도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요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사회차원의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으며 주요 장으로서 대학교육, 사회적으로 배포되는 도서 등 수단에 대한 제안도 하고 있으며, 교육의 장기적 효과에 주목하여 해당시기에 대처하게 하는 교육이외에 준비교육으로서 다음 단계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까지 연구참여자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생활교육과 관련된 두 번째 주제는 남성의 생활자립을 위한 남성교육으로서 40대, 50대, 60대 FGI 여성 집단에서 모두 동일하게 남성교육의 필요성이 강하게 드러났다. 부인이 없으면 밥도 못해 먹고 굶는 남성들에게 100세 사회는 상상하기 힘든 현실이다. 내 아들이 최고인 부모님 밑에서 귀하게 자란 남성들이 결혼해서 부인이 해준 밥만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은퇴를 맞이하게 되면, 그야말로 자립능력이 제로인 무능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스스로 밥도 못 챙겨 먹는, 항상 누군가에게 자신의 먹거리를 의존해야 하는 상황은 남성들에게 100세를 낙관하기가 힘들게 하는 조건이다. “아 내가 나갔는데 밥을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밥통 조종을 못해가지고. 그걸 못 열어 가지고. 한 번 나왔잖아요 드라마에서. 이제 100세 시대니까 퇴직과 더불어 역할 좀 바꿔서 해 봤으면...” (B-1)

그래서 모든 부인들은 무능한 남편들의 자립적 생활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A-3, B-1, C-2, C-3)하고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간단한 우리나라 음식같은 거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을 정책으로 해서 시키면 좋겠어요."(C-2) 그러나 여성들과 달리 남편들은 100세 사회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가사도우미'제도(E-4)를 언급하고 있다. "저는 생활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주위에서 가만히 보니까. 가사 도우미가 있으면 자기가 노년에 돈이 있으면, 도우미만 있어도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E-4). 이렇듯 남성들은 자립을 위한 자신의 변화를 상상하거나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곧 노후를 맞은 남성들뿐 아니라 남자아이 혹은 그 남자아이들과 생활을 함께 운영해 갈 여자아이들에 대한 장기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도출된다. 참을성을 가지고 남편교육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40대 여성은 이러한 교육이 자라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때 효과적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남편 같은 경우는 자라면서 연습이 안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만족스럽게 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이제 인식이 되니까, 아 하나 하나부터 연습시키고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혼자 어디를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는 당장 자기가 불편해서, 자기가 힘들거든, 못하면, 내가 없더라도 생활할 수 있게끔, 연습을 시켜줘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시점을 남편이 일선에서 물러났을 때, 그 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시키면서 그 때 가서는 좀 도와 달라 그리고, 장도 보러가고, 연습을 시켜야 하겠다. 그런 거를 생각하면,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 생활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또 깨달은 거예요 제가." (A-3)

지금까지 모두 여섯 개의 그룹 인터뷰를 통해 100세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전망과 가족생활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전망 그리고 가족생활교육요구의 네 영역에서 주제를 도출하여 100세사회 도래를 가까이에 두고 대처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주요 암시들을 100세 사회를 열어갈 당사자들로부터 얻을 수 있었다. 전체 면접은 사회의 변화와 그러한 변화를 걸러내는 가족과 개인의 시각을 통과한 의견들을 수집하도록 해 주었으며, 100세 사회가 개인의 통제를 넘어서는 거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수반한 변화를 특징으로 하며 그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가족과 개인의 행동양식을 전망하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한 편 그러한 수동성 속에 내재한 면담 참여자들의 소망과 제안은 개인과 가족을 넘어서서 사회가 이들을 지지하고자 할 때 취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다음 절에서 이러한 연구결과가 주

는 결론과 함의를 집중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100세 사회에 대한 전망을 살펴본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성장기 및 성인기에는 100세 사회에 대한 인식 없이 살아왔으나 새로운 시대에 노년기에 진입해야 하는 40대~60대 남녀를 대상으로 100세 사회에 대한 인식, 전망과 정책 요구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FGI를 실시하였다. FGI는 40대 여성 1팀, 50대 여성 1팀, 60대 여성 1팀과, 40-50대 남성 2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FGI를 통해 도출된 네 가지 대주제 영역은 100세사회 전망, 100세 사회 가족생활 전망, 100세사회 지역사회와의 관계 및 요구, 100세사회 가족생활교육에 대한 요구이다. 각 영역별 주제를 보면, 100세 사회 전망 영역에서는 생소하고 불안한 미래, 일자리와 소일거리에 대한 요구, 100세 사회 가족생활 전망 영역에서는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노후 돌봄, 지역사회와의 관계 및 요구 영역에서는 지역사회 시설과 대안적 생활양식, 100세 사회 가족생활교육에 대한 요구 영역에서는 생애적 관점의 가족생활 교육과 남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이었다

연구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100세 사회에 대한 전망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여, 40대인 경우에는 본인의 100세의 삶을 현실감 있게 지각하지 않으며, 아주 먼 미래로 인식한다. 그러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100세 사회를 현실적으로 지각하면서 경제력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령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인식한다. 두 번째, 100세 사회에서도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일자리와 소일거리이다. 연구참여자들은 100세 사회의 노년기에도 일자리와 소일거리가 중요하며,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연령대에 맞는 일자리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인식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일자리나 소일거리는 경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과도 상관있는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한다. 세 번째, 100세 사회 가족생활 전망은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이 많고 중요할 것이라고 인식한다. 그리고 자신들은 부모세대를 돌보았지만, 자녀로부터는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또한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없다고 전망한다. 그러나 여성 연구참여자들은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을 현실적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100세 사회에서는 자녀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부 돌봄을 한 뒤, 시설로 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남성 연구참여자들은 시설 돌봄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면서 현실과 무관하게 가족 돌봄을 기대하고 있다. 네 번째, 지역사회와의 관계 및 요구를 보면, 국가가 운영하는 요양시설, 노인공동쉼터, 프로그램이 풍부한 노인정 중심으로 100세 사회의 여가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

망한다. 여가력(餘暇歷) 관점에서 보면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미리미리 준비해야하는 것이 바로 '여가'이다. 이러한 인식은 100세 사회에 대한 준비 또한 전생애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여가를 찾고자하는 노력도 간간히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노후에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그리고 대안적인 삶의 방식으로 마음 맞는 친구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도 시설 돌봄의 대안으로 전망하며,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100세 사회에 대한 대비나 준비없이 100세 사회를 맞이해야 하는 만큼, 가족생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따라서 생애적 관점의 가족생활교육 및 남성 교육이 필요함을 전망한다.

이러한 결론에 근거해서 논의할 가족정책의 함의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40대는 100세 사회를 생소하게 전망하고 있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현실적인 문제로 지각하여 본인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보였으며, 특히 남성들에게서 노후에 대한 걱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처럼 100세 사회 가족정책의 일차적인 대상은 곧 노후를 맞이하게 될 베이비부세대가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아직 젊은 40대의 막연한 대처를 고려하면 전 생애주기별 집단에 대한 정책을 100세 사회 관점으로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전생애주기에 걸쳐 100세 사회를 대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것이다.

둘째, 100세 사회에서는 전반적으로 부부관계가 지금보다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즉 자녀 독립 후 부부만 남게 되면, 당연히 부부관계가 중요해질 것이라 생각하고, 특히 함께 할 취미나 활동, 일상적 가사나 생활을 중심으로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100세 사회에는 부부관계 중심의 신체적, 정서적 의존과 여가 및 가사 공유가 커질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생활을 함께 하는 단위로서 부부관계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만큼 100세 사회 노인부부가 서로 돌보고 부양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가족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건강한 노인이 스스로 자기돌봄이 가능한 조건으로서 신체적 돌봄 지원, 가사지원, 여가 공유와 정서적 지원 등 100세 사회 새로운 가족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하겠다.

셋째, 부모-자녀관계는 부부관계보다 덜 중요하게 인식하여,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지원은 감소할 것이라 전망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손자녀 돌보기와 같은 부모로서의 역할은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으로써 독립적인 부모자녀관계의 한계를 보였다. 즉, 베이비부머세대인 현재 50~60대 부모들은 자녀가 자신의 노후를 책임질 것이라 기대는 하지 않지만,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책임은 완수해야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쌍방향의 호혜적인 부모-자녀관계는 사라질 것이라 전망할 수 있으며, 이는 20~30년 후 100세 사회 노인이 될 50~60대 베이비부머의 노후생활설계가 가족정책의 주요 과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전 생애적으로 노후생활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가족 돌봄의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 또한 여성 연구참여자들은 여전히 손자녀 돌봐주기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자녀 돌봄과 관련된 정책 보완이 필요하며,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넷째, 가족 내 가족원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배우자, 자녀, 시설에 대한 의존도를 분석해보면, 가족 내에서는 자녀보다는 배우자에게 의존하고, 상황이 악화되어 가족 내에서 해소할 수 없게 되면 시설에 의존하겠다는 인식이 지배적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요양원 같은 시설을 선택하는 것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마음 내키는 선택은 아니고 여전히 가족에 대한 의존과 기대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특히 남성들의 경우 시설에 대한 거부감이 여성들보다 더욱 강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싫든 좋은 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지역사회시설에 대한 요구가 컸다. 구체적으로는 저렴한 가격의 실버타운 보편화, 노인 공동주택 조성 등의 제안이 있었다. 이처럼 100세 사회에는 가족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나 시설이용 의존도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향후 가족정책의 대상이 가족이라는 테두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로 확대되어야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 내 가족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가족정책의 외연을 넓혀야 할 것이다.

다섯째, 100세 사회 새로운 거주형태로 가족이나 시설이 아닌 대안적인 생활방식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원룸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 함께 어울리는 '따로 또 같이'방식의 사례, 마음이 맞는 친구와 함께 가족처럼 지내는 '멋쟁이 할머니'의 사례가 새로운 생활양식으로 고려대상이 되었다. 특히 노인1인가구의 비중(65세 이상 가구 중 1인가구 비중이 2035년 38%에 달함)이 점차 커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유사가족형태의 공동체적 생활양식이 다양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유사가족형태에 대한 지원은 100세 시대 가족정책의 중요한 정책영역이 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노인들이 만나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공간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정이나 마을회관, 문화센터 등에서 노인들을 위한 취미교실이나, 노인수준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 개발, 노인이 되기 전에 부부가 함께하는 노후여가생활 설계의 필요성까지 제기되었다. 우리보다 인구고령화의 경험을 빨리한 일본의 경우, '여가력(餘暇歷)'의 개념을 통해 청장년기 여가가 노년기 여가에 미치

는 영향을 강조하고, 생애단계별 여가경력(leisure career) 개발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여가력' 관점은 100세 사회를 전생애적 관점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개념이다. 특히 100세 사회 여가는 창조적 생산성, 통합성, 사회적 생산성, 세분화의 방향으로 논의되는 바(S. Yoon, 2011), 중요한 정책과제로 다루어야 한다.

여섯째, 100세 사회 가족생활 전망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구로 제기되는 것이 바로 일자리, 소일거리에 대한 것이었다. 노후생활의 경제적 원천으로서 일자리의 의미와 생활의 즐거움, 활력의 의미로서 소일거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100세를 살게 되니까 일자리가 더욱 중요해지기도 하였지만, 100세를 살기 위해서라도 일자리가 꼭 필요한 것이다. 인터뷰를 통해 79세에도 봉사를 다니시며 갈 곳이 있어 즐거워하는 어머니의 사례, 밖으로 돌아다녀야 잡념이 없어 오래 산다는 아버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는 100세를 살아가는데 필수적이다. 노인에게 있어 일의 의미가 70세를 전후로 달라지는데, 이는 노인이 더 이상 하나의 집단으로 동일한 특성을 지닌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노인의 연령별, 소득계층별 특성에 적합한 일거리를 마련하는 것이 100세 사회 가족정책의 기본이 되어야한다.

일곱째, 100세 사회 가족생활교육이 더욱 중요한 가족정책의 과제가 될 것이라 전망된다. 특히, FGI 여성 집단에서 모두 동일하게 남성교육의 필요성이 강하게 드러났다. 부인이 없으면 밥도 못해 먹고 굶는 남성들에게 100세 사회는 상상하기 힘든 현실이다. 100세를 사는 남성들에게 자조적인 생활능력 향상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즉, 특히 그동안 가정내 역할 부재로 소외되었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자기 돌봄 및 배우자 돌봄에 필요한 생활능력향상 프로그램, 부부관계회복 프로그램 등 특화된 가족정책이 요구된다.

한편 100세 사회 가족생활을 전망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부부교육,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강하게 제기되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그동안의 가족생활 경험을 토대로, 부부됨, 부모됨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생애주기 관점에서 100세 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족생활교육 정책이 요구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100세 변화하는 가족생활에 대비하여 새로운 가족상을 이해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가족생활교육이 필요하다. 예비부부교육, 건강한 부부관계, 건강한 부모자녀관계 정립을 위한 가족교육, 노인준비교육 등 생애주기에 걸친 다양한 형태의 가족생활교육을 통해 가족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100세 사회에 대한 전망과 관련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100세 사회를 살아야 하는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전망과 정책 함의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100세 사회를 뉴 노멀로 인식하면서 삶을

재설계해야 함을 강조한 점에서 실천적 의의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대주제나 소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구명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Ahn, H. S., Kim, H. M., Ahn, J. K., & Kim, Y. H. (2009). Effects of the degree of preparation for old age and perception of the successful aging on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women.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3(3), 137-155.
- Bengtson, V. L., Rosenthal, C., & Burthorn, L. (1990). Families and aging: Diversity and heterogeneity. In Binstock, R. H. & Geroge, L. K.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Academic Press, New York, 263-87.
- Chang, H.-K., Hong, S.-A., Lee, S.-W., Kim, Y.-R., Kang, E.-H., & Kim, K.-E. (2006). *Domestic care work survey (RR-2)*. Seoul: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Chang, H.-K., Kim, E.-J., Kim, Y.-R., Kim, H.-Y., & Chung J.-H. (2011). *The future of the family and projections for policies regarding women and families in South Korea (RR-16)*. Seoul: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Choi, J. S. (2006).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in moving motiva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senior cohousing residents in Scandinavia.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4(1), 117-128.
- Choi, S (2011, March). *The challenges for the sustainable aging society*. Low Fertility-Aging Society Forum in Preparation the Era of Centenarians, Seoul, Korea.
- ChosunBiz. (2010). *New Normal*. Retrieved from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6/25/2010062501407.html](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6/25/2010062501407.html)
- Han, G. H., Choi, H. J., Eun, K. S., Lee, J. H., Joo, S. H., & Kim, J. H. (2011). *The life's prospect of Korean baby boomers* (Human Development Report 2011). Seoul, Korea: MetLife Korea Foundation.
- Han, G. H. & Lee, J. H. (2012). *Now, when you say a middle-aged*. Paju, Korea: Kyomunsa.
- Hong, S. M., Ha, K. H., & Kim, M. G. (2013). An exploratory research on the social right of people with

- mental illness living in community. *Korean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in Social Welfare*, 7(1), 5-31.
- Kim, D., B., Park, S. Y., & Kim, S. B. (2010). The influence of using of long-term care service on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family care-givers: A comparison of leisure activity.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5(3), 117-135.
- Kim, E.-J. & Lee, S.-Y.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types and intention to using long term care services. *Family and Culture*, 22(2), 1-30.
- Kim, Y. (2007). Analysis on factors affecting elderly care work hours and stresses in care work among family caregivers. *The Women's Studies*, 72(1), 31-72.
- Kim, Y. H. (2011, Novemb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 and social challenges*. The 16<sup>th</sup> Fall Conference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Seoul, Korea.
- Korea Information Strategy Development Institute. (2006). *A general report about future changes of family relationships and family roles by informatization*.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operative studies series 06-03-01). Seoul, Korea: Author.
- Korea Information Strategy Development Institute. (2011). *A general report about future changes of family relationships and family roles by informatization*.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Human new deal series 11-05-02). Seoul, Korea: Author.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0). *Baby boomers' demographic profiles and welfare needs* (RR 2010-30-18). Seoul, Korea: Author.
- Kruger, R. A. (1999). *Analyzing and reporting focus group result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 Lee, S. H. (2012, November). *2030 mega trends and responses*. Academic Seminar of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Seoul, Korea.
- Lee, S.-M. & Kim, H.-K. (2009) Elderly husbands' caregiving for their sick wives: Narratives of husbands and wives. *Family and Culture*, 21(4), 63-94.
- Lee, S.-S. (2011). *A policy research for the low fertility-aging society in preparation for the generation of the 100-year-olds* (2011-80-2). Seoul, Kore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Lee, S. Y. (2011, December). *The implications and policy directions of the advent of the era of centenarians*. Academic Seminar of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Seoul, Korea.
- Morgan, D. L. (1997). *Focus groups as qualitative research*. London: Sage Publications.
- OECD International Futures Programme(2008). *The future of the family to 2030: A scoping report*.
- Park, Y. R. (2007). Care workers' needs and the long term care policy for the elderly.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23(1), 27-56.
- Seok, J.-E. (2009). Case study on changes in relationship between family care givers and care receivers arising from public home care for the elderly. *Family and Culture*, 21(1), 29-61.
- Seok, J. E. (2009). The differences and determinants in the perception on old-age support across generations in Korea.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9(1), 163-191.
- Shin, K.-A. (2010). The isolation and the mutual understanding in narratives of elderly care: Before and after the long term care policy. *Family and Culture*, 22(4), 63-94.
- Statistics Korea. (2010). *2010 Census*. Retrieved from <http://kostat.go.kr>
- Statistics Korea. (2011). *Population estimates*. Retrieved from [http://kosis.kr/gen\\_etl/start.jsp?orgId=101&tblId=DT\\_1B01B03&conn\\_path=I2&path=](http://kosis.kr/gen_etl/start.jsp?orgId=101&tblId=DT_1B01B03&conn_path=I2&path=)
- Suh, K. H. & Chun, K. I. (2009) The Moderat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Family Caregivers' Burdens and Health and Quality of Life with Demented Patien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5(3), 339-357.
- The R.O.C. laws & Regulations database(2011). *Family Education Law*. Retrieved from <http://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H0080050>
- Yoon, S. (2011). *Preparation for the 'era of centenarians' and activation plans for leisure and cultural activity* (2011-51). Seoul, Korea: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접수일 : 2013년 10월 30일

□ 심사일 : 2013년 12월 08일

□ 게재확정일 : 2013년 12월 29일